

종교개혁과 신학

유해무(고려신학대학원)

종교개혁과 신학을 다루려고 한다면, 한국교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텍스트가 성경이라면, 종교개혁을 위시한 교회역사 2,000년은 참고점이고, 우리의 콘텍스트는 한국사회와 교회이다.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콘텍스트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고 종교개혁과 신학을 다루는 것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성경말씀이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간 교회사 2천년은 중요한 참조점이며, 교회사의 연장선상에서 동시대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사회와 현대교회도 우리의 참조점이다.

종교개혁이 개혁자 루터(1483-1564)의 개혁 사역과 연관적 역사적 용어라면, 종교개혁과 신학의 주제를 ‘죄’와 사죄라고 볼 수 있다. 죄 문제와 씨름하던 루터는 중세 로마교회가 모든 교인에게 연 1회 이상 요구하였던 고해성사와 면벌을 이른바 95개 조항에서 성경에 기초하여 주요 논쟁거리로 삼는다. “신학의 고유한 주제는 죄 중에서 정죄받은 인간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주 하나님이다. 이 주제 바깥에서 질문하고 논의하는 것은 큰 과오요 독약이다.”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와 의롭다 함을 받는 자리(坐所)는 예배이다.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따라서 교회와 예배와 신학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이 주제들을 2016년 한국교회와 예배의 상황에서도 살피고 씨름하려고 한다.

1. 종교개혁인가 개혁인가?

개신교도는 루터와 개혁을 동일시하며, 고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렇지만 교회는 시작과 더불어 개혁이라는 과제와 씨름한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항상 위기 속에 처해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교회는 자기 개혁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현재 오직 한 가지 의미로 교회개혁을 뜻한다. 그런데 교회개혁이나 제도에 대한 개혁이라는 말은 중세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 즉 기독교인의 개혁이었다. 개혁되지 않은 인간이 개혁해야 할 제도를 만들며, 그런 제도는 개혁을 거부하는 인간을 생산한다. 결국 개혁은 죄인의 개혁이며, 개혁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죄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다.¹⁾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어 건 날짜는 1517년 10월 31일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100년 전인 1417년 10월 30일, 로마교가 제 16차라고 부르는 콘스탄츠 공의회(Konstanz; 1411,11-1418,4)의 제 40차 전체회의는 새로 선출될 교황의 사명은 개혁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²⁾ 그러나 같은 회의는 2년 전인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 대광장에서 보헤미아의 후스(Jan Hus, 1369-1415)를 화형에 처한다. 서방교

1) Cf. 유해무, Monasterium semper reformandum, Ecclesia semper reformanda!, 『신학논단』 제 56집, (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2009), 269-306.

2) 그러나 마르티누스 5세(1417-31)는 선출되자마자 공의회가 주장하는 공의회주의를 거부하고 교황 우위 사상을 고수한다.

회의 15세기는 이렇게 화형으로 시작하여, 같은 방식으로 마친다. 즉 1498년 3월 25일 플로렌스에서 사보나로라(Hieronymus Savonarola, 1452-1498)를 참수형에다 화형까지 처한다.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발행한 출교칙서를 불에 넣어 태운다.³⁾ 루터는 화형을 피하였고, 오히려 화형의 주체를 화형시켰다. 교회개혁을 주장하던 후스와 사보나로라는 화형을 당했고, 교황직의 과업으로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은 교황들은 개혁에 실패했다. 개혁을 목표로 삼았던 중세 말엽의 공의회들도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제 5차 라테란 공의회가 1517년 3월 16일에 폐회하자, 루터는 그해 10월 31일에 95개 명제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내걸었다. 교황이 아니라 루터가 개혁을 이루었다.

놀랍게도 중세 로마교회의 형편과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흡사하다.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종교개혁기념일만 되면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실을 개진하는 정도를 넘어 한국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강연이 즐비하다. 교회개혁을 사역과 존재의 목표로 삼은 단체나 언론 기관도 적지 않다. 개혁을 구호로 내건 중세교회와 아주 흡사하다. 짧은 기간에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도 이제는 짧은 기간에 성장의 반대 현상인 쇠퇴와 부패와 타락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가고 있다. 수도원이나 사막 교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흡사하다.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도 지적할 수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이다. 중세는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였지만, 개신교회 전체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한국개신교회는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교황권의 확립은 로마교회 방식대로는 교회의 일치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한국교회는 개혁을 운위하면서도 이 일치에 대하여 신학적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

‘종교개혁’, 이 번역이 합당한가? 한 편으로는 맞고 다른 편으로는 부적합한 번역이다. 만약 ‘종교’가 제도나 교직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삶 전부를 담고 있다면 맞는 번역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종교 이해는 이후에 거의 사라지고 제도와 교직으로서의 종교인 기독교를 의미한다.⁴⁾ 그러면 개혁의 의미는 제한된다. 전 삶의 영역을 담고 있는 믿음으로서 종교가 아니라 제도로서의 종교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여도 제한적 영역에 국한한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제한적 의미에서 신학이 다룰 영역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옳지 않다. 종교개혁은 삶의 전영역을 아우르는 개혁이기 때문이다.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내걸 때, 수도사 루터는 교황에게 충실하였고, 마리아를 숭배하였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바는 일곱 성례의 하나인 고해성사였고, 이 성례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 성례와 연관된 연옥 사상이나 돈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지엽적인 사안을 중심에 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엽적이지만은 않았다. 중세의 틀을 흔들고 바꾸어 놓은 대단한 시도였다. 개혁은 따지자면 예배개혁이며 복귀이다. 중세의 근간이었던 인간의

3) “Exsurge Domine”, 1520,6,15 발행. 교황은 루터에게 주장을 철회할 6개월의 기간을 주었다.

4) W.C. Smith,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길희성 역, 「종교의 의미와 목적」 (왜관: 분도출판사, 1991), 64-66.

전통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귀였다. 개혁은 루터가 의식적으로 시도한 운동은 아니었다.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인정하고 인간의 죄와 부패와 무력(無力)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인간의 전통을 비판한 개혁이었다. 죄 고백과 사죄 받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혁이었다.⁵⁾

2. 루터의 신학 이해

중세신학은 철저히 교회에 봉사하였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어용신학의 경향을 지녔다. 루터가 문제로 제기한 연옥이나 면벌부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연옥에서 영혼의 체류 기간에 대해서 신학자마다 입장이 달랐다. 교황권이나 마리아론 등은 이미 정착하였다.

루터가 중세를 종결시킨 것은 신학의 재발견이다. 루터는 1545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출판한 전집의 서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1518-19년에 두 번째로 시편을 강의하였는데, 그의 서술은 이 시절에 대한 회고이다. 그는 1513-18년까지 시편(1513-15), 로마서(1515-16), 갈라디아서(1516-17)와 히브리서(1517-18)를 강의하였다. 이미 첫 번째 시편 강의에서부터 루터는 시편을 그리스도의 노래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편 22편의 “나의 하나님 이여 나의 하나님이여”에서 루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간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고난(Anfechtung)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두 번째 시편 강의(1518-1519)를 통하여 그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점을 밝혀보려고 한다. 시편 첫 강해에서 그는 시편 71:2절을 “주의 의는 주 앞에서 의롭게 함인데, 이로써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주석한다.⁶⁾

루터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적 죽음에 기초한 칭의로 본다. 중세는 마리아와 성인의 숭배 사상을 고조시켰고, 이를 교황이 배포할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시작인 것은 틀림없다. 오히려 루터의 하나님의 약속 이해가 더 중요

5) “교회는 개혁을 필요로 한다. 최근 공의회가 보여주듯이 한 사람 교황이나 많은 추기경의 개혁 작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 개혁의 시간은 시간을 창조하신 자만이 아신다”, M. Luther.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Weimar-Köln-Tübingen 1883ff, 1.627,27-31. 루터는 개혁이 인간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밝혔다. 그 자신은 스스로 개혁자라고 주제 넓게 나선 적도 없다. 다만 다른 이들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나섰을 때에 교황은 가차없이 예배의 개혁을 진압하였다. “스트라스부르크의 감독이 자기 지경을 질서대로 다스리고 예배에서 개혁하며 이를 위하여 경건하며 기독교적인 법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교황은 사제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이 거룩하고 영적인 제정을 저주하였다... 왜? 한 교회가 개혁되면 이는 위험한 시발이 되기 때문이었다”, *WA* 6,422,9-17. 루터는 교회의 개혁을 소망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것만 따로 일어날 수 없었다. 중세는 통합적인 세계였다. 물론 이 가운데서 교회와 예배가 중심이긴 하였다. 예배와 교회의 개혁은 곧 중세 세계의 개혁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개혁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WA* 50,516,10! 이 전집은 ‘Weimarer Ausgabe’로 불리면서 ‘WA’라는 약칭을 지니고 있다. ‘3.458,19-20’에서 ‘3’은 권을, ‘458’은 페이지를, ‘19-20’은 줄을 표기한다. 칼빈은 교회개혁보다는 사람개혁을 더 강조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사람개혁의 주체이심을 자주 언급한다.

6) *WA*, 3,458,19-20. 그는 계속하여서 “믿음의 의로써 사람들은 의인이다”고 한다, 459,16.

하다. 고해성사의 마지막은 사죄 선언이다. 그런데 중세는 인간의 보속(補贖) 행위를 통하여 인간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기초하여 사죄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선언의 주체인 하나님과 대상이자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창출한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명령이 요구하는 바를 베푸시며, 명령이 요청하는 바를 성취하신다. 곧 계명과 계명의 성취가 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⁷⁾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말씀은 새롭고 최종적인 약속을 제공한다. 경건치 않은 자의 칭의(롬 4:5)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다.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토론에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cis)을 제창한다. 주님이 다시 살리신 자들에게서 논증이 되듯, 자유 의지는 죽었다.⁸⁾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바를 행함으로 은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죄에 죄를 더하여서 이중으로 죄과를 지게 된다.”⁹⁾ 이런 배경에서 나온 십자가의 신학은 중세의 영광의 신학에 대치하며, 바울의 가르침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대치된다. 이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추상적이고 귀납적으로 도출한다. 이것은 행위로부터 사람의 의를 정초시키는 중세의 도덕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루터는 “이루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인지하며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는 (후적) 속성들을 보면서 인지하는 자가 신학자이다”¹⁰⁾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란, 덕, 신성, 지혜, 의, 선 등과 같은 속성들이다. 영광의 신학자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해서나 또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만물에 임재하여 계심을 보고 말한다.¹¹⁾ 그러나 루터는 정적 추상 작업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하라는 주장이었다. 즉 계시적인 지식을 말한다. 행위에 의한 의라는 도덕주의나 창조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합리주의, 그리고 관상(contemplatio)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추구하려는 신비주의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는 욕망에서 나왔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빌립이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요 14:6-9).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 신학과 신지식이 있다.”¹²⁾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속성들에 대치되는 하나님의 보이는 속성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성, 연약과 미련함이다(고전 1:25). 신적인 것이 없는 듯한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직접 계시하지 않고, 십자가의 수욕과 치욕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십자가가 없이 영광과 위엄을 지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허사이다.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와 같이 그는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7) WA 7,24,18-20.

8) WA 1,360,9-10.

9) These 16, 1,354,11-12.

10) These 19-21, 1,354,17-22.

11) *Resolutiones disputa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 (1518), 1,614,17-20.

12) “Ergo in Christo crucifixo est vera Theologia et cognitio Dei”, 1,362,18-19.

1532/38년에 행한 시편 51편의 강해는 죄 이해에 기초한 루터신학의 묘미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루터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는 철학적 인간론을 다루지 않는다. 이는 신학이 아니라 학문이 다룰 주제이다. 법률가는 인간을 재산의 소유주나 주인으로 보며, 의사는 인간을 건강하다거나 병약하다 한다. 그러나 신학자는 죄인인 인간을 다룬다. 신학자는 인간이 죄로 물든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 좌절하며 지옥에서 몸부림치게 된다. 이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겠는가. 이것은 사변이 아니라 현실이며 느낌이다. 그러면 그는 지옥에 빠진 자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칭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죄인 편에 서신 의인, 의롭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된다.

이것은 다윗이 가르치는 이중 신학 지식이다: 신학적 신론이요 신학적 인간론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바와 그분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를 사변적으로 접근하지 말며, 철학이나 법학이나 의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지 말아야 한다. “신학의 고유한 주제는 죄중에서 정죄받은 인간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주 하나님이다. 이 주제 바깥에서 질문하고 논의하는 것은 큰 과오요 독약이다.”¹³⁾ 온 성경은 죄와 정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심을 증거한다. 신학의 문제는 몸의 건강이나 안녕이 아니다. 요지는 장래요 영생이다.

루터는 인간이 죄에 빠져서 죽음에 처해졌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체험해야 한다(*sentiatur et experiatur*)고 말한다. 동시에 이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며 고쳐주시는 구속주이심도 알아야 한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법률가, 의사, 부모에게 맡겨야 하지만, 신학자만이 죄를 폭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죄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은 ‘이성의 신학’이다.¹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하나님과 참 예배에 대한 참 신학이다. 죄를 인지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신학은 거짓이다. 우리는 죄로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신학적 지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이상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만이 남는다. 여기서 루터는 죄의 본성을 철학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다만 죄 고백만이 있을 뿐이다. 죄는 율법과 복음으로 알게 된다: 죄는 계시되어야 한다. 아리스텔레스는 죄를 가르치자 않는다!¹⁵⁾ 말씀으로 죄가 계시되면 두 가지 반응만이 있을 뿐이다. 사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알고 고백해야 한다. 죄를 덮는 자는 성령을 거부하는 자이며, 죄를 해명하고 변명하는 자에게는 사죄가 있을 수 없다. 죄를 고백하는 자는 은혜를 안다. 죄의 본질

13). “Si sum peccator in me, in Christo non sum peccator, qui nobis factus est iusticia, iustificans est et dicitur, quod ad peccatores pertinet et peccatoribus missus est etc. Hae sunt istae duae Theologicae cognitiones, quas David in hoc Psalmo tradit, ut sit argumentum Psalmi de cognitione hominis Theologica et de cognitione Dei etiam Theologica... Nam Theologiae proprium subiectum est homo peccati reus ac perditus et Deus iustificans ac salvator hominis peccatoris. Quicquid extra hoc subiectum in Theologia quaeritur aut disputatur, est error et venenum”, 40/2,327,31-328,19.

14). 40/2,342,24.

15) “Aristoteles non docet de isto peccato”, 40/2,369,10.

을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하려 들지 말고,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신학적 지식이다. 선지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동시에 원죄를 언급한다. 원죄교리는 이성이 알 수 없으며, 율법과 약속을 통하여 알 수 있다(롬 5:12).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그러나 자신이 신학박사가 되어도 수년 동안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다.¹⁶⁾

중세교회가 주장하고 강요한 고해성사는 애초부터 성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성례는 본래 공적이다. 사적인 성례는 인간의 전통이 만든 종교행위이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공적인 회개의 순서를 공예배에 넣었다. 회개와 사죄의 자리는 예배이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재현한다. 이 은혜에 예배자는 응답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에서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개혁과 교회개혁이다.

3. 교회와 예배와 신학

개혁자 루터나 칼빈 선생의 교회 정의는 분명하다. 루터는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표지에 의해서 교회를 아는가? 따라서 어떤 가지적 표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표지에 의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다. 표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표지는 세례, 성찬과 그리고 모든 것보다 강한 복음이다. 이 3가지는 기독교인들의 표지들, 보물들, 특성들이다, 그대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세례와 성찬과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 표지들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 ... 그 복음이 있는 곳에 같은 신앙, 같은 소망, 같은 사랑, 같은 성령이 있고, 실로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 ... 복음은 사실 성찬과 세례에 앞서 교회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고귀한 징표이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교회는 배태되고, 형성되고, 성장되고, 생산되며, 배우고, 길러지고, 옷입고, 장식되고, 강해지고, 무장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폐일언하고, 교회의 온 생명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나는 기록된 복음이 아니라 발성된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¹⁷⁾ 칼빈도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정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경청되며,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을 따라 집행되는 곳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¹⁸⁾

16). Continet igitur hic versiculus causam, cur nos omnes debeamus confiteri, quod simus peccatores ac omnia nostra studia coram Deo damnabilia, solus autem Deus sit iustus. Atque haec doctrina summe necessaria est in Ecclesia... Nam hoc possum testari moe exemplo, me, cum multos annos Doctor Theologiae fuisset, hanc doctrinam nondum scivisse, 40/2,384,28-33.

17). Luther, “Ad librum eximii Magistri Nostri Magistri Ambrosii Catharini, defensoris Siverstri Prieratis acerrimi, responsio”(1521), *WA* 7,720,32-721,15.

18) Calvin, *Institutio*, 4,1,9.

그런데 이 교회 정의는 사실 예배에서 잘 드러난다. 성경은 교회를 예배공동체로 규정하며(신 4:10; 고전 10:18,20), 교회도 고대교회로부터 교회를 예배와 연관하여 정의하며, 이 전통을 개혁자들도 이어 받았다. 루터는 방편 중에서도 말씀을 가장 중요한 방편, 가히 유일한 방편이라고까지 하였다. 이것은 미사로 보이는 예배를 고수한 중세교회를 향한 반발이었다. 성경은 확실히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며, 말씀(복음, 설교)이 중요한 은혜의 방편임을 말한다. 문제는 이런 발견과 복귀와 더불어 보이는 말씀(어거스틴)인 성례를 부차적이거나 무시하는 전통이 개신교회 안에 점차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개혁자들의 공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과나 부족을 답습하지 않음으로 가능하다. 예배와 집회의 혼란은 개혁자들의 한계에서 나온 측면이 강하며, 이런 발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예배의 중요 구성요소인 말씀과 성례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루터의 말처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교회는 배태되고, 형성되고, 성장되고, 생산되며, 배우고, 길러지고, 옷입고, 장식되고, 강해지고, 무장되고, 유지된다면, 한국교회의 설교는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야 하며, 설교자는 생사를 걸고 말씀을 묵상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설교의 표절 현상은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 이런 말씀 도둑질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기갈은 피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기갈을 채우도록 내어몰린다. 성례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도 심각하다. 세례 교육이 빈약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진중 세례 등 세례 남발도 곳곳에서 벌어진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성례로서 구원 역사가 구원의 서정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고대교회가 세례교육을 3년간 시행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행으로 이웃의 칭찬과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수백만 기독교교인수를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례인데, 한국교회의 성찬이해는 츠빙글리의 기념설을 따르고 있다.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다면, 성찬으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면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 옷을 씻고 무장을 재정비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다.

말씀과 성례로 이루어지는 예배에는 회중의 응답도 있다. 곧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다. 그러나 이 응답은 문자적으로 응답이다. 응답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주도하고 신을 부르는 접신행위가 결코 아니다(왕상 18:27 참조). 은혜는 삼위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주시며 회중은 이 은혜를 받아야 돌려드릴 수 있다(대상 29:14 참조). 따라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종교의 강화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개혁하여야 진정한 개혁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강화될 것이다.

교회정치에서 한국교회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다. 개혁자들은 로마 감독인 교황의 교권 독점과 횡포를 비판하였다. 루터교회와는 달리 칼빈은 제네바에서 장로직분을 회복하고, 목사와 더불어 장로도 목자의 직분임을 확립하였다. 직분은 봉사와 수종의 일이며, 개혁교회는 어떤 직분도 어떤 직분을 지배할 수 없다고 밝힌다. 교회를 다른 교회를, 어떤 직분도 다른 직분을 지배할 수 없으며, 모든 직분은 유일한 주님이신 주님께 순복해야 한다. 이런 개혁교회의 직분론과는 달리, 미국 복장로교회의 학

지(Ch. Hodge)는 목사직을 최고직이라고 말한다. 이 여파는 아주 커서 한국에서 목회와는 무관하게 너도나도 목사직을 얻도록 신학교가 난무하고 목사 안수를 남발한다. 게다가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라 비장로교회도 장로직을 도입하고 있다. 감리교회나 오순절교회에는 장로직분이 없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장로직분이 없는 교파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교회는 교회정치면에서 장로교화가 이루어졌지만, 성경적인 장로직분의 이해와 수행은 요원하다. 이 배경에는 사람을 항상 호칭을 따라 부르고 대우하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관계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직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소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걸맞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신학은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에게서 찾기 어렵다.

예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는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때 예배자는 응답하면서 삼위 하나님으로 찬탄하여지며 새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으로 파송받는다. 그러나 예배가 부패하거나 은혜를 자리가 아니면, 예배자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사죄받을 수도 없다. 은혜로 사죄함을 받는 예배가 신학의 자리이다. 주일 예배에서 예배자는 옛세 동안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예배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직분을 바로 수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4.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와 신학

개혁자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homo coram Deo)을 깨달았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입고 서면 의인이다. 개혁이 준 많은 유익 중에서 이 ‘코람데오’는 중요한 유산이다.¹⁹⁾ 중세신학을 지배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로 루터는 중세의 막을 내렸다. 여기서 중세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인간 본성의 모습을 말한다. 삼위 하나님만이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며 치유하시며,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여 새사람을 창출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에서 체험한다. 이런 죄고백과 사죄와 거듭남이 있는 예배가 사람과 교회를 개혁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 서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신학이라는 용어가 ‘엄밀한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원래는 신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었고, 고대 교회의 선배들이 이교적인 용어를 성경으로 교정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예배에 적용하였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설교가 성경적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것이 고대 교회의 선배들이 생각한 신학이고, 개혁의 선배들인 루터와 칼빈이 사용한 의미의 신학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신학자이다.”²⁰⁾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신학의 현장이며 참 예배자가 신학자이다. 이런 원래적인 신학 위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반성적 작업

19) Cf. 유해무, “코람데오”, 이환봉/박대근 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근삼 박사 사역 50주년 기념 논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02). 389-407.

20) *WA*, 1.305.25

인 학문으로서의 신학도 가능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학문이라는 이념의 옷을 입은 이른바 신학은 진정한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 신학의 울타리에서 나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신학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이다.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전인(全人)은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새창조의 동역자이다. 종교개혁은 한 마디로 사람개혁과 교회개혁과 세상개혁을 다 포함한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런 개혁은 항상 있어야 하며, 개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에서 동역자로 세우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학문과 개혁의 사명이다.